

한반도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등재적 접근 -구비전승물을 중심으로-*

홍 순 일**

【논문개요】

이 논문은 한반도 도서지역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등재적 관점에서 살피되, 구비전승물에 구축된 민속문화소통장치에서 구현되는 島嶼精神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현사회에서 해양정서의 사적 위상을 살핀 것이다.

1) 우선 문화자원의 성격을 논의했다.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은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예술대상+예술가+예술작품+독자·청중·관객’의 관계 속에 있는, 무한성과 유한성, 개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동성과 능동성 등을 깊이있게 살펴야 한다. 또한 문화자원 자체를 橋頭堡로 할 뿐만 아니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와 문화관광을 위한 개발·보존과 기록·영상을 수단으로 할 때 지역문화가 특성화되는 據點地域과 문화권역이 전개되는 中點地域이 획득될 수 있다.

2) 다음에 지역문화가 역사적으로 특성화되는 면에서 구비전승자원예의 접근을 논의했다. 고기잡이 외에 바다와 배를,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매체]와 융합시키는 도서지역민은 종합예술제의장에서 해양신격을 모심으로 써 일생과 생산의 주기에 따른 의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진술과 문학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005-J02701).”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22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적 형상에 의한 미적 전유행위를 시도했다. 그 결과 대상→본질→인식→의식→현상→실천→정서와 관련된 民俗文化의 疏通裝置가 構築되고, 민속과 관련된 생명의 생태성, 적응의 자연성, 다양의 개방성, 의식의 진취성 등 島嶼精神이 具現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문화학자는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정보화→활용→심화단계로 다루되, 도서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공간을 중시하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그 상대적 특징과 문화권역의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대비 항목의 자료를, 행위주체자, 배경, 대상, 인식, 표현 등의 측면에서 추가하고, 이들 요소간의 통합적인 연구작업을 기획하여, 구축된 민속문화소통장치에 구현된 도서정신인 해양정서를 구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 끝으로 문화권역이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을 논의했다. 섬의 시각과 사안에 따라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으로 5구분한 문화권역은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으로 재구성되었다. 한국의 문화자원은 문명의 관점에서 해양문화를 세계담론의 거점으로 다루되, 그 자체와 연구가 학, 비교학, 미학, 운동 등의 중심에서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로 대상화되기도 해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생활상의 기능을 환기하고, 어로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은 이러한 작업의 원동력이므로, 한국과 세계 연구자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학술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사업을 장기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주제어 : 한반도, 도서지역, 문화자원, 어로문화, 등재, 구비전승물, 도서정신, 해양정서, 민속문화소통장치, 해양문화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문화권역의 전개와 등재의 과제 |
| II. 문화자원의 성격과 등재의 조건 | V. 맺음말 |
| III. 구비전승자원에서의 접근과 등재의 성과 | |

I. 머리말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¹⁾은 개별성을 지닌 한국의 것이 일반성을 지닌 세계의 것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통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된²⁾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해양문화자원과 관련된 것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다. 대표목록에 종묘제례,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건과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5건이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어로문화와 관련된 구비전승자원의 연구는 그 동안 도서민의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해양정서를 살피는 데는 미흡했다. 물론 대상→본질의 사고전략→인식→의식→현상의 표현전술→실천→정서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대상의 인식면’에서 해양에 대한 의식을 살피는 시도를 했다.³⁾ 이것은 주로 신화, 종교, 역사, 문화 등 국내외의 문헌자료

1) 1999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서남해 도서·연안지역 무형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 『서남해 도서·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9;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한국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연구-무형문화자원 분야-」,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도서·해양문화 심층연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2)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란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에 근거해 탄생한 것으로,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한 데 모아 일종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유네스코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정하다가 폐지한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의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걸작’이라는 용어가 무형유산 사이에 우열과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http://www.unesco.or.kr/front/main/>)

3) 이경엽,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도서문화』20, 목포대 도서문

를 수집·분석한 것이다. 이차적으로 ‘인식한 대상의 표현면’에서 우리나라 대중가요⁴⁾, 서남해 島嶼地域의 구비전승물⁵⁾, 서해 도서지역⁶⁾ 칠산어장⁷⁾·죽도어장⁸⁾·연평어장⁹⁾의 구비전승물, 남해 도서지역 거문도·남해도의 구비전승물¹⁰⁾ 등에 나타난 해양정서를 살피는 일을 했다. 이것은 해양과 관련된 가요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서남해·서해·남해 도서·연안지역 어로문화와 관련된 구비전승자원을 수집·분석한 것이다.

화연구소, 2002.08, 79-116쪽; 이동근·한철환·엄선희, [보고서]「역사와 해양의식-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12; 강봉룡, 「한국인의 해양인식과 해양사」, 한·일 해양사-해양문화 공동 워크숍 『한일 해양사 연구의 최전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누리 다도해문화콘텐츠사업단, 목포대 인문대학 대학원 세미나실, 2008.11.27(목)10:00, 12-22쪽.

- 4) 김순갑,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나타난 해양정서」, 『해양문화연구』제4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1998.12, 131-173쪽; 김순갑, 「우리대중가요 70년에 나타난 해양정서: 이별의 슬픔과 새 시대의 희망이 파도처럼 출렁인다」, 『시민시대』통권 제172호, 목표학술회, 1999.02.01, 28-33쪽.
- 5)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문화관광-〈신안민요〉·〈완도민요〉·〈진도민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17, 한국민요학회, 2005.12, 311-355쪽; 홍순일, 「《신안민요》의 언어문학적 접근과 소리문화적 활용-〈지도민요〉·〈중도민요〉·〈임자도민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14, 남도민속학회, 2007.06, 321-366쪽.
- 6)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민속문화정보」, 『한국민요학』19,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 7)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 8) 홍순일, 「서해바다 황금갯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도서문화』3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12, 287-335쪽.
- 9) 홍순일, 「서해바다 연평어장권 조기잡이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연평도 주민들의 삶과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남도민속학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회의실(구 소회의실), 2008.11.29(토) 14:00, 76-97쪽.
- 10) 홍순일, 「남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멸치를 중심으로-」, 『거문도와 남해도의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회의실(구 소회의실), 2009.10.15(목)14:00, 71-93쪽.

이 과정에서 문헌자료에서 현지자료를 보완하고, 협의권역에서 광의권역으로 확장된 조사·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에 따라 문헌적 지역활성화의 주제어로 ‘서남권’에서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으로 확대된, 그리고 대비된 해양정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 등을 확인했다. 실제로 서남해권 어로문화와 관련된 구비전승자원을 조사·연구하는 문제의식, 관점, 연구방법론을 서해권의 그것에 적용시켰다. 해양·도서[섬]·연안과 강·들[평야]·산과의 연계 속에서 서해 도서지역민들의 구비전승에 나타난 해양정서를 주제어 ‘조기’, ‘갯벌’을 통해 살핀 것이다. 현재 남해권의 그것에도 적용시키고 있다.¹¹⁾ 이후 동해권의 그것에도 적용시킬 것이다. 그러나

11) 이에 관한 필자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관광지로서 도서지역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것의 특성, 즉 진취성·개방성·다양성을 맞추는, 민요관광의 문화기획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의 논문, 2005.12, 311~355쪽 중 340~341쪽]. ② 다음으로 민속의 자연적 적응성, 민속의 생태적 생명성, 민속의 진취적 의식성, 민속의 개방적 다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폈다[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중 289~300쪽]. ③ 그 다음으로 1항 生命性を 기본으로 한 金力的 生態性과 權力的 生態性, 2항 適應性を 바탕으로 한 情的 自然性과 非情的 自然性, 3항 多樣性を 토대로 한 完全的 開放性과 不完全的 開放性, 4항 意識性を 기초로 한 先進的 進就性과 後退的 進就性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다[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41~556쪽]. ④ 한편 지역민의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문화적 생태성, 지역민의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연성, 지역민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개방성, 지역민의 의식성을 기초로 한 문화적 진취성 등으로 각각 표현하여 살폈다[앞의 논문, 2007.06, 321~366쪽 중 336~346쪽]. ⑤ 끝으로 ‘地域民의 意識性を 기초로 한 進就性’을, 둘인 ‘의식성을 기초로 한 前進的 進就性과 後進的 進就性’으로 구분했다. 이전의 ‘先進的 進就性과 後退的 ’을 버린 것이다[앞의 논문, 2007.12, 287~335쪽 중 312~317쪽; 그리고 이것은 다음 논문들로 이어져 앞의 발표논문, 2008.11.29(토) 14:00, 76~97쪽 중 85~86쪽; 위의 발표논문, 2009.10.15(목) 14:00, 71~93쪽 중 76~81쪽;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해양정서의 구비적 전승」, 국내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9.10.22(목) 15:00, 244~285쪽 중 254~261쪽].

한반도 도서지역 해양정서의 구비적 전승에 대한 조사·연구는 여전히 논의거리¹²⁾로 남아 있다. 즉 한반도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이 문화권역에 따라 지역문화적으로 전개되어온 실상을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권역의 전개면에서 지역문화로서 어로문화와 관련된 구비전승자원을 조사·연구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반도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를 염두에 두고, 문화자원을 登載的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2장 ‘문화자원의 성격과 등재의 조건’에서, 문화자원의 존재양상과 의의, 문화자원의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조건 등을, 다음에 3장 ‘구비전승자원에서의 접근과 등재의 성과’에서,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 대한 연구방향과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세계 등재 성과 등을, 그리고 4장 ‘문화권역의 전개와 등재의 과제’에서, 세계를 겨냥한 한국 문화권역의 논의, 한국·세계 문화자원의 등재 과제 등을 논의하겠다.

이 작업을 위한 자료는 뒤 참고문헌에 제시한 (고)문헌조사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 등이다. 용어에서 ‘구비전승물’은 구술상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언어상 토속인지어, 기억속신어, 민속구조어 등으로 제한하고, 민속공동체, 구비연행자, 생애담과 연관시키기로 한다. 인지어는 지역용어이고, 속신어는 금기어이며, 구조어는 수수께끼·속담 등이다.¹³⁾ 또한 ‘해양정서’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해양·도서[섬]·연안을 대상으로 인식한 내용인 의식이 감정으로 표현된 것¹⁴⁾으로 간주하고, 강·들[평야]·산과 연관시키기로 한다.¹⁵⁾

12) 홍순일, 위의 발표논문, 2009.10.22(목)15:00, 244-285쪽.

13)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14) “거문도·남해도 중심의 남해(완도~고흥~남해권)도서민이 해양·도서[섬]·연안지역에서 강·들[평야]·산을 오가면서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희노애락과 같이, 본능적·충동적

필자는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이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 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된 실체라고 전제하고, 지역문화로서 구비문화자원을 문화권역의 전개면에서 살피기를 기대한다. 조사를 지속하고 연구주제를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섬사람들의 연행을 통해서 구비전승물의 세계상을 봄으로써 공간과 사람의 인식태도를 규명하고, 생업과 문화의 소통을 통해 교류·수용되는 해양정서를 비교·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이 지니는 상대적 특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문화권역의 전개적 실상도 제대로 파악될 것이다. 또한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에 대한 접근은 향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자원의 성격을 이해¹⁶⁾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추가 등재에도 유익할 것이다.

으로 일어나 외부에 표출되기 쉬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또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주위의 분위기나 기분이 있다.” (홍순일, 앞의 발표논문, 2009.10.15(목)17:21, 71-93쪽 중 74쪽)

- 15)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38쪽.
 16)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묘제례,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건과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5건 중에서 판소리와 남사당의 경우, 해양문화적 전개를 살피되, 수용과 교류의 측면에서 심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남사당의 경우, 이경엽에 의해 이미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경엽, 「도서지역의 민속연희와 남사당연구 - 신안 남사당 노래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 제33집, 한국민속학회, 2001.06, 225~254쪽; 「남사당 노래의 전승과 민속의 창조적 수용」, 『민속학 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2001.08, 221~242쪽; 「서남해 지역의 남사당 관련 민속연희와 연희자 연구」, 『공연문화연구(구 고전희곡연구)』 5,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희곡학회), 2002.08, 209~233쪽; 「임자도의 파시와 파시 사람들 - 파시 사람들의 생활과 현지 주민들의 관계 -」, 『도서문화』 제2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12, 353~383쪽.

II. 문화자원의 성격과 등재의 조건

여기서는 필자가 다음 장인 제3장과 제4장의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방향에서 문화자원의 존재양상과 의의, 문화자원의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조건 등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겠다.

1. 문화자원의 존재 양상과 의의

여기에서 문화재(문화재, 해양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문화자원’의 용어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관련시키기로 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자원으로써 개발되고 활용될 때 연속·변이·선택 등을 통해 전승되는 문화재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¹⁷⁾이란 주어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체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면을 말한다. 즉 사람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등과 관련된 유적, 유물, 건축물 및 역사적인 자료,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과 구전을 포함하는 것이다. 문화가 곧 삶의 진정성을 회복해 주는 의미가치이자, 인간다운 삶의 보람을 실현해 주고 바람직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목적 가치이므로, 문화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바람직한 길잡이이다.¹⁸⁾ 이런 문화자원은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으로 나뉜다.¹⁹⁾

17) 앞의 1999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1999 참조.

18)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08, 439-491쪽 중 440-441쪽.

유형문화자원은 고고유물·유적, 불교유물·유적, 유교유물·유적, 관방유물·유적, 도자 가마터 생활유물·유적 등, 전통민가, 자연 및 경관자원, 여가공간 등인데 고고학·역사학·건축학·조경학에서 다룬다. 무형문화자원은 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체계, 도서주민들의 생애사, 방언, 생업기술과 도구, 의식주생활, 민속신앙,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속연희와 놀이, 구비문학, 사회구조, 문화적 삶의 공간과 지역활성 방안 등인데, 민속학·방언학·구비문학·문화인류학·사회학·지역개발학 등에서 다룬다.

21세기 문화상생의 시대²⁰⁾에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삶²¹⁾은 지역적 특수성만큼이나 매우 독특해서 한국문화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비전승자원인 이야기와 노래는 이 지역의 기층민중의식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지역문화상품에 대한 상징 이미지를 개발할 경우에 좋은 소재가 된다. 가령, 서남해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승하고 있는 망부석 이야기, 이순신장군 이야기, 노

19) 임재해는 “문화를 그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제각기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전제한 후 “무형문화와 유형문화, 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에 의해 유형적인 물질문화가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임재해, 「민속문화의 공유가치와 문화주권」, 『한국민속학』40, 한국민속학회, 2004, 132쪽;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45, 한국민속학회, 2007, 246-247쪽; 「물질문화의 재인식과 문물로서 유무형 문화의 유기적 해석」, 『민속학연구』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175쪽; 위의 논문, 2009.08, 439-491쪽 중 442·445쪽 참조) 이 논의는 필자의 논의에서 유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정적 결론을 예견하는 말이므로 새겨들을 만하다.

20) 19세기를 식민지 개척의 무력전쟁 시대, 20세기를 시장 확보의 무역경쟁 시대, 그리고 21세기를 문화상생의 시대(문화소통과 공유의 문화교류 시대를 포함)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임재해, 「한류열풍의 문화사적 인식과 전통문화의 세계」, 『전통문화논총』4, 한국전통문화학회, 2006, 8-11쪽을 인용한 임재해, 위의 논문, 2009.08, 439-491쪽 중 469쪽의 각주 32)번 참조.)

21) 앞의 1999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1999.

적봉 이야기는 관광상품의 디자인으로 좋은 소재가 되고, 그것을 바로 상품화할 수 있겠다. 이 점은 임재해의 논의²²⁾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임재해는 무형문화 가운데도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한 설화는 21세기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자원이라고 했다. 문화콘텐츠화 방향의 두 길은 아날로그방식 문화산업과 디지털방식의 미디어산업인데, 아날로그 문화산업인 관광·축제·출판·영화·연극·만화·디자인·공예 등에서도 이야기를 중요한 자원으로 삼지만, 미디어콘텐츠 창작에는 이야기가 더 결정적 구실을 하므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은 으레 이야기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문화콘텐츠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야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안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요는 지역축제의 주요한 레퍼터리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전승되어오는 설화와 민요의 음성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은 각 지역의 문화회관에 비치하여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학교의 교육자료로서도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민속극은 공연자료이므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효과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속인지어, 기억속신어, 민속구조어 등의 언어를 구사하고,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을 구술하는 민속공동체의 도서지역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민, 특히 구비연행자의 생애담은 지역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기록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문화사를 이해하며,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만약 이 생애사가 조사되고, 생애담이 연구되어 문화자료와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22) 임재해, 위의 논문, 2009.08, 439-491쪽 중 480-481쪽 참조.

자기인식과 자아에 대한 자부심을 얻고, 소중한 경험들과 식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서로의 삶을 자극할 것이다. 생애담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공동체를 결속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화된 생애사 자료들은 영상문화와 방송자료, 학습자료 등 다양한 면에서 지역활성화와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때 문화론적 지역활성화²³⁾는 실제의 지침이 될 것이다.

2. 문화자원의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

흔히 문화자원으로서 문학작품 중심의 예술은 대상→인식→표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다²⁴⁾고 한다. 예술작품은 그 배후에서 대상이 되는 세계와 작가에 의한 인식, 그리고 표현이라는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창작되기 때문이다. 예술영역 또한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대상→인식→표현이라는 각각의 단계에 여러 가지 차이와 특수성이 생긴다. 이러한 점은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예술대상+예술가+예술작품+독자·청중·관객’의 관계 속에서 살필 때에도 예외일 수 없다.

첫째, 이해·반영면에서 대상과 인식의 모순이다. 대상이 되는 세계는 시간적으로 무한하며 극히 다양한데 비해, 인식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또는 사회적으로 받는 제약으로 인해 유한하기 때문이다.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 중에서 토속인지어, 기억속신어,

23)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측면의 접근 방법론으로서,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앞의 1999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1999; 홍순일, 앞의 논문, 2005.12, 311-355쪽 참조;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홍순일, 앞의 논문, 2007.12, 287-335쪽.

24) 편집부 구성, 「예술가의 고민」, 『철학에세이』, 동녘, 1983, 99-103쪽 참조.

민속구조어 등의 언어와 민요, 설화(무속신화) 등의 구술이 무한한데, 인식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속공동체 속 구비연행자의 생애담을 연관시키면 이 간극은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현·변형면에서 인식과 표현의 모순이다. 인식은 개인의 두뇌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사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비해, 표현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 중에서 언어와 구술 그리고 민속공동체 속 구비연행자의 생애담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데 비해, 표현이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하회탈놀이 외에 하회마을과 하회탈을 지정하듯이²⁵⁾, 민속공동체인 마을에서 행위주체자인 구비연행자가 생애담 속의 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등 구비전승물을,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 등 매체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때 해양정서는 해양·도서[섬]·연안지역 구비전승물을 대상으로 인식한 내용인 개인적 의식이 강·들[평야]·산과의 연관 속에서 사회적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수용·효용면에서 감상이라는 모순이다. 작가의 인식이 표현된 것, 즉 작품과 감상의 모순이다. 감상이란 작가가 체험한 것을 예술작품을 통해 체험하는 것인데 작가의 체험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데 비해, 이제까지의 생활경험에서 얻은 인식을 총동원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민속공동체인 마을에서 행위주체자인 구비연행자가 체험한 것을,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 중에서 생애담 속의 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등 구비전승물을,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 등 매체를 가지고 노는 것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다. ‘대상+주체1+작품+주체2’인 ‘예술대상+예술가+

25)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2007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07.10.25, 17-44쪽 중 31쪽.

예술작품+독자·청중·관객²⁶⁾의 관계 속에서 체험의 반복이라는 수동성과 충동원된 인식이라는 능동성이 충돌하며 작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영역은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대상→인식→표현이라는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차이와 특수성이 생긴다. 이러한 점은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예술대상+예술가+예술작품+독자·청중·관객’의 관계 속에서 살필 때 구술의 무한성과 인식의 유한성, 의식의 개인성과 표현의 사회성, 그리고 체험의 반복이라는 수동성과 충동원된 인식이라는 능동성 등에서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이 지니는 이러한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에 주목하여,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는 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3.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조건

起點인 문화자원은 자체를 橋頭堡로 할 때, 지역문화가 특성화되는 據點地域과 문화권역이 전개되는 中點地域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수단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와 문화관광을 위한 개발·보존 및 기록·영상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원은 여러 가지 층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금’의 기억·기록과 관련된, 무형의 문화자원화, 문화자원의 정보화, ‘여기’의 토속·특성과 관련된, 민속의 문화원형화, 콘텐츠의 문화산업화, 상품의 문화관광화, ‘희곡·문학·예술·문화·문명’과 관련된, 갈등의 여행론적 공연, ‘태도·지식·기술’과 관련된, ‘지역에서 세계로’의 인문학적 실용, ‘해양·도서[섬]·연안, 강·들[평야]·산’과 관련된, 구비전승자원의 문화론적 개발·활용²⁷⁾ 등이 바

26) M.S.까간 지음·진중권 옮김, 『미학강의』 I·II, 새길, 1989·1991 참조.

로 그것이다. 한국과 세계 사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조건으로서 하나는 문화자원의 한국적 개별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관련 지역과 공동체 문화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보유자들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신청을 사전에 동의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조건으로서 다른 하나는 문화자원의 세계적 일반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재를 결정했는가 하는 것이다.

덧붙여 문화관광을 위한 개발·보존 및 기록·영상의 수단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관광²⁸⁾은 지역문화 발전의 通路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관광이 문화자원을 개발·보존하여 이를 變容하거나, 이를 活用하거나 하여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개발·보존된 기록·영상의 문화자원은, 變容의 차원에서 DB화를 거친 후, 정보화될 수 있는데 이 길이 ‘DB관리’이고, 개발로 기록·영상화되어 보존된 문화자원은, 活用の 차원에서 문화콘텐츠화를 거친 후, 상품화될 수 있는데 이 길이 ‘문화관광’이다. 여기서 문화콘텐츠화는 문화자원을 캐릭터, 게임, 영화, 출판, 문구, 모바일, 애니, 음반 등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DB관리’로부터 ‘문화관광’으로까지 나아가는 경로가 ‘관광자원화’라고 하겠다.²⁹⁾

요컨대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은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

27)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29-530쪽.

28) 홍순일, 앞의 논문, 2005.12, 311-355쪽 중 315-316쪽.

29) 문화관광은 긍정적인 면에서만 수용될 수 없다. 이 문제는 다른 지면에서 살피기로 한다.

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예술대상+예술가+예술작품+독자·청중·관객’의 관계 속에 있는, 무한성과 유한성, 개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동성과 능동성 등을 깊이있게 살펴야 한다. 또한 문화자원 자체를 橋頭堡로 할 뿐만 아니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와 문화관광을 위한 개발·보존과 기록·영상을 수단으로 할 때 지역문화가 특성화되는 據點地域과 문화권역이 전개되는 中點地域이 획득될 수 있다.

Ⅲ. 구비전승자원에의 접근과 등재의 성과

이 제3장은 제2장의 논의를 전제로 ‘구비전승자원에의 접근과 등재의 성과’에서,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 어로문화의 구비전승 자원에 대한 연구방향과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세계 등재 성과로 나누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

여기에서 자체 또는 연구 관련 도서·해양문화(자원), 해양문화(자원), 도서·연안지역 문화자원 등의 용어가 있으나, 필자는 맥락에 따라서 이를 선택하기로 하겠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도서·해양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서남해, 서해, 남해 및 제주, 동해, 동아시아, 세계 등에 관한 단

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어로문화자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행위주체자의 구비전승물(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외에 마을[민속공동체]과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매체]를 관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제간의 공동연구방법론을 요청하게 된다.³⁰⁾

학제간 공동연구는 단순히 동일한 대상을 분야별로 연구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여러 분야가 공동으로 분석하고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 나갈 때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 構築된 民俗文化의 疏通裝置를 통해 具現된 島嶼精神을 파악하기 위해, 학제간의 공동연구가 청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단계 해양·도서[섬]·연안과 강·들[평야]·산 사이 도서·해양문화의 소통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연구방법론을 지향해야 한다.³¹⁾

그렇다면 도서·해양문화의 設定構圖는 무엇인가. 물고기, 조개, 바

30) 이러한 발상은 아래 연구원의 사업계획서에서도 발견된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7년도 인문한국(HK) 지원사업(대형)에 선정되었습니다. “쌀·삶·문명 - 쌀문화를 통한 자연·인간·문명의 통섭적 연구”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매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10년간(2007.11~2016.10) 사업을 수행합니다. (「연구원 개요」, 『전북대학교 인문한국(HK) 쌀·삶·문명 연구원 제3차 연구인력 초빙 공고』,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2009.09.22)

3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의 26년사는 이의 필요성과 시도를 보여준다. 1983년 3월 이후의 학술답사(연구용역 포함), 도서·해양문화연구, 학술회의의 개최, 도서문화의 발행은 1999년 12월 이후 중점연구소 6년, 2005년 12월 이후 중점연구소 9년 중 4년을 거치면서 심화되었다. 특히 2005년 중점연구소 1단계(3년)는 조기, 갯벌, 소금·젓갈 등의 주제를 조사·연구했고, 2단계(3년)는 멸치, 김, 해녀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3단계(3년)는 오징어, 명태, 미역 등을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홍순일, 「학술용역과 학술행사」, 강봉룡·이윤선·홍순일 지음,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5년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제작: 민속원), 2008.12.30. 135-288쪽 참조.

닷말 따위를 잡거나 採取하는 漁撈는 대상-인식-표현의 관계상 행위 주체자, 배경, 대상, 인식, 표현 등의 통합행위인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주체자(사람)는 어부, 해녀 등이다. 배경은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들(평야), 산, 갯벌 등이다. 대상(해산물)은 조기, 소금, 멸치, 김, 오징어(명태), 미역 등이다. 인식(태도·지식·기술)은 기후,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바람의 종류 등이다. 표현은 해산물의 가공물인 젓갈, 구비의 문학·예술인 구비전승물 등이다. 이를 <표1>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 구축된 민속문화소통장치와 구현된 도서정신

도서정신	민속문화소통장치	관계상 국내외 (고)문헌조사자료/현지조사 자료	
		문학상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	언어상 인지어, 속신어, 구조어 등
생명의 생태성	행위주체자(사람)	어부, 해녀 등	
적응의 자연성	배경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들[평야], 산, 갯벌 등	
다양성의 개방성	대상(해산물)	조기, 소금, 멸치, 김, 오징어(명태), 미역 등	
의식의 진취성	인식(태도, 지식, 기술)	기후,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바람의 종류 등	
	표현(해산물의 가공물, 구비의 문학·예술)	젓갈, 구비전승물 등	

그 배경³²⁾에는 뱃사람들의 생애 이야기 중심에는 바다와 배와 고

32) 나승만, 「(2) 서남해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애 이야기」, 「1) 어촌 주민과 생활사 문화자원」, 「3. 서남해역 생활사 문화자원」, 「I. 서남해역」, 「제2편 해역별 내역」,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

기잡이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뱃사람들의 생애 이야기는 바다와 배와 고기잡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기술적으로 적응하고 개척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간다. 배가 인위적 공간이라면 바다는 자연의 공간이자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공간이고, 고기는 이들을 연결하는 매개물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 환경, 뱃사람과 바다가 만나면서 펼쳐지는 어부들의 세계는 도전과 적응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서 대비 항목의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이 지닌 상대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권역의 전개적 실상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양문화학자³³⁾는 앞 <표1>과 대비했을 때 같은 주제어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주제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행위주체자(사람)의 경우, 해녀뿐만 아니라 장보고, 왜구, 무역상인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배경의 경우,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갯벌 등을 다루었으나, 들[평야], 산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바다, 간척, 해언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도서지역, 무인도서, 해안사구, 연안습지, 포구, 수로 교통, 지질, 한국전쟁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지역에서 전체인 한반도, 강원권[강원도]인 울릉도·동해안 어촌지역, 충청권[충남(대전), 충북]인 충남 태안 대섬, 내포해안, 서해안, 전라권[전남(광주), 전북]인 전남 신안 우이도, 전북 군산 야미도,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마을, 전남 서남권, 전남 남해안, 제주권[제주도]인 제주도, 경상권

역책임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요약보고서』, 해양수산부, 2002.10.

33) 2009-10월 국내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도림캠퍼스) 교수회관 3층 강당(구 대회의실)·신안비치호텔(목포시), 2009.10.22(목)13:00~23(금)12:00, 초청장 참조.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인 남해도, 거제도 등이 거론되었지만,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해외지역에서 전체인 동북아시아, 일본 琉球·沖繩 포함, 중국, 독일, 러시아, 유럽(프랑스) 등이 살펴졌다.

대상의 경우, 조기, 멸치, 오징어(명태) 등 어종뿐만 아니라 해안 식생, 해양 동물플랑크톤, 철새, 희귀자원식물, 도서민가 ‘마래’공간, 고려청자, 침몰선, 마을제당, 관음상, 목상여 등도 다루었다. 소금, 김, 미역 등은 소홀히 했다.

인식된 경우, 기후, 바람뿐만 아니라 항해 등에 관심을 갖았고, 어촌공동체, 어촌 어머니티, 契, 갯벌생태계,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YSLME),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어로민속, 서남해안 어법, 인적 네트워크, 해양자원의 공유방식과 분배체계, 해양오염 및 방재 등 해양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해양문화연구, 해양사(수산사, 해양교류사), 해양고고학, 해양인류학, 해양민속학, 해양생태·정책, 공동연구, 지역연구, 어업규제, 도서해양민속학, 응용민속학, 민속지리, 해양정책, 해양관광 등 해양문화학 연구를 다루었다. 그러나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현된 경우,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 뿐만 아니라 해양문학, 기행문학, 소설, 표류·유배기록, 상여놀이, 마조신앙, 천제로서 별신제, 풍어굿, 위도 띠뱃굿, 풍물굿, 영등굿 등의 주제어를 다루었다. 그러나 첫같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행위주체자의 경우 장보고, 왜구, 무역상인 등이, 대상의 경우 해안 식생, 해양 동물플랑크톤, 철새, 희귀자원식물, 도서민가 ‘마래’공간, 고려청자, 침몰선, 마을제당, 관음상, 목상여 등이, 인식의 경우 항해가 추가되었다. 반면에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등에 대한 인식이, 들[평야], 산 등의 배경이, 그리고 가공물인 첫같은 표현이 상

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로문화의 구비 전승자원 분야 전공자는 이들 요소간의 통합작업을 기획하고, 학제 간 공동연구를 주도하여 구축된 民俗文化 疏通裝置에 구현된 島嶼精神을 구명해야 한다.

2.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 대한 연구방향과 내용

도서·해양문화³⁴⁾는 지역문화가 특성화된 거점지역과 문화권역이 전개된 중점지역이 획득될 때 비로소 起點으로서 要衝地가 되고, 문화자원은 전략상 자체를 橋頭堡로 삼게 된다. 도서지역민이 도서[섬]에서 배를 타고 해양(바다)과 연안으로 진출하되, 江을 통해 도서[섬] 지역 들[평야]·산의 이미지를 육지의 들[평야]·산의 그것에 연결·投影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지역민이 종합예술제의장에서 해양신격을 모심으로써 일생과 생산의 주기에 따른 의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진술과 문학적 형상에 의한 미적 전유행위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은 대상→본질의 사고전략→인식→의식→현상의 표현전술→실천→정서와 관련된 民俗文化의 疏通裝置가 構築됨에 따라 民俗과 관련된, ‘地域民의 生命性を 기본으로 한 文化的 生態性’, ‘지역민의 適應性を 바탕으로 한 문화적 自然性’, ‘지역민의 多樣性を 토대로 한 문화적 開放性’, ‘지역민의 意識性を 기초로 한 문화적 進就性’ 등의 島嶼精神이 具現되어 있다고 하겠다.

34) 홍순일, 앞의 발표논문, 2009.10.15(목) 13:30-18:00 중 17:21, 71-93쪽 참조.

1)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생태성

한반도 도서지역의 변화 속에서 지역민이 생업방식을 형성해 나감에 따라 여러 요인이 반영된 민속에서 문화적 생태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生命의 生態性’이 바로 그것이다. 신앙면에서 ‘지역민의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문화적 생태성’은 상상으로 신앙하며 행위를 통해 신앙의 結節點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신앙이 상상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로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는 生命性を 기본으로 한 生態性과의 관계에서 추출되는 의미망이다. 들과 섬에서 생명을 지닌다는 일반성이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기본으로 한 생태성의 유무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金力的 生態性和 權力的 生態性³⁵⁾이 바로 그것이다. 生態는 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권력(power)은 물리력, 돈, 지식(또는 폭력, 富, 지식)으로 구성되고, 사회변동은 이것의 이동(shift)이다.³⁶⁾ ‘생태성의 기본인 인간의 생명’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물리력, 돈, 지식의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민속과 관련된, ‘지역민의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문화적 생태성’을, 둘인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금력적 생태성과 권력적 생태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민속의 생태적 생명성’³⁷⁾에 관한 것이므로, 생명성은 일반성이고, 생태성은 개별성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은 구비전승물에서 섬의 생명성에 기본을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35) 생명이 있는 사람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을 얻느냐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돈 중심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다.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43쪽)

36) 엘빈토플러·이규행 監譯,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4.

37) 홍순일, 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중 291-294쪽 참조.

생태적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섬의 경우 권력이 아니라 금력에 생명의 축을 두고 생태적 신앙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에서 ‘도서지역민의 생명’이 던져주는 ‘생태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 문학상의 구비전승물에 대한 민중의 생명적 지역인식과 생태의 해양정서적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의 생태성은 어로행위주체자가 배를 타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면서 해산물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어로행위주체자에게서 발견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로행위주체자인 어부, 해녀 등이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들[평야], 산, 갯벌 등에서 조기, 멸치, 오징어(명태) 등을 잡고, 소금, 김, 미역 등을 채취하는 동시에 이를 가공하는 것은 생태를 통해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어로행위주체자가 생태를 통해 생명을 추구하는 길에서 지역용어인 인지어, 금기어인 속신어, 수수께끼·속담인 구조어 등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도서지역민의 어로행위에는 들과 섬에서 생명을 지닌다는 일반성을 기본으로 한다. 거기에다가 구비전승물을 통해 권력적 생태성이 아니라 금력적 생태성을 표현한다. 섬의 생명성에 기본을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생태적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문학상, 신앙의 상상을 통해서 어로문화자원의 논리적 신격화를 볼 수 있다. 생태적 생명의 민속신앙면에서 상상으로 신앙하며 행위를 통해 신앙의 結節點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금력적 생태성과 권력적 생태성은 구비전승물을 형성하고, 해양정서를 표출하는 데에 의미망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의 구비전승물에서 생태적 생명성

이라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2)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성

한반도 도서지역의 변화 속에서 지역민이 생업방식을 형성해 나감에 따라 여러 요인이 반영된 민속에서 문화적 자연의 적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適應의 自然性’이 바로 그것이다. 의례³⁸⁾면에서 ‘지역민의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연성’은 의례하며 행위를 통해 생산의례의 結節點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의례가 천하만사의 이행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로 내세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自然性과의 관계에서 추출되는 의미망이다. 들과 섬에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일반성이 있다. 그러나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성의 유무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情的 自然性과 非情的 自然性³⁹⁾이 바로 그것이다. 自然은 사람의 손에 의지 않고서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현상. 산, 강, 바다, 동물, 식물, 비, 바람, 구름 따위이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활동은 ‘知性·感情·意志’ 등 근본 기능이 있다.⁴⁰⁾ ‘자연성의 바탕인 인간의 적응’은 이와

38) 禮란 이행이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외형적 질서이고 천하만사의 의식이다. 순자는 禮란 인간의 생과 사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고, 순자의 제자인 관자는 법은 예에서 나왔다고 했다. 한편 중국정치사의 변천은 예치시대와 법치시대로 대별된다. (『통과의례 편』, 『서울민속대관』4, 서울특별시, 1993, 79-88쪽 중 86쪽 참조). 儀禮란 인간의 행위에 생기는 관습이다.

39) 육지의 경우 적응의 방법은 부하, 회(당)원 등 아랫사람을 거느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섬에서는 도서민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기잡이하는 어장의 점유형태로 나타난다.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46-547쪽)

40)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3, 1902쪽.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知·情·意의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민속과 관련된, ‘지역민의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연성’을, 둘인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정적 자연성과 비정적 자연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민속의 자연적 적응성’⁴¹⁾에 관한 것이므로, 생명성은 일반성이고, 생태성은 개별성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은 구비전승물에서 섬의 적응성에 바탕을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자연적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섬의 非情이 아니라 情에 적응의 축을 두고 자연적 의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에서 ‘도서지역민의 적응’이 던져주는 ‘자연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 문학상, 어로행위의 구비전승물에 대한 도서민의 적응적 지역인식과 자연의 해양정서적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적응의 자연성은 어로행위주체자가 배를 타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면서 해산물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어로행위주체자가 자연에 적응하면서 발견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로행위주체자인 어부, 해녀 등이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들[평야], 산, 갯벌 등에서 조기, 멸치, 오징어(명태) 등을 잡고, 소금, 김, 미역 등을 채취하는 동시에 이를 가공하는 것은 생태적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연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어로행위 주체자가 자연에 적응하는 길에서 인지어, 속신어, 구조어 등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도서지역민의 어로행위에는 들과 섬에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일반성을 바탕으로 한다. 거기에다가 구비전승물

41) 홍순일, 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중 289-291쪽 참조.

을 통해 비정적 자연성이 아니라 정적 자연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섬의 적응성에 바탕을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자연적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문학상, 어로행위의 의례를 통해서 고기잡이 어장의 운영을 볼 수 있다. 자연적 적응의 민속의례면에서 의례하며 행위를 통해 생산의례의 결절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정적 자연성과 비정적 자연성은 구비전승물을 형성하고, 해양정서를 표출하는데 의미망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의 구비전승물에서 자연적 적응성이라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3) 다양성을 토대로 한 개방성

한반도 도서지역의 변화 속에서 지역민이 생업방식을 형성해 나감에 따라 여러 요인이 반영된 민속에서 문화적 개방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多樣的 開放性’이 바로 그것이다. 놀이면에서 ‘지역민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개방성’은 풍어제를 詩歌舞⁴²⁾로 푸는 행위를 통해 놀이의 結節點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놀이가 언어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로 내세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다양성을 토대로 한 開放性과의 관계에서 추출되는 의미망이다. 들과 섬에서 생명체가 적응하면서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일반성이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토대로 한 개방성의 여부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完全的 開放性과 不完全的 開放性⁴³⁾이 바로 그것이다. 開放은 금

42)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곡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02. [재수록]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참조.

43)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이유는 육지문화가 사회 속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승하고자 하지만, 해양문화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서, 자연에의 적응을

하던 것을 풀고 열어 놓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것이다.⁴⁴⁾ ‘개방성의 토대인 인간의 다양’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불완전·완전의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민속과 관련된, ‘지역민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개방성’을, 돌인 ‘다양성을 토대로 한 완전적 개방성과 불완전적 개방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민속의 개방적 다양성’⁴⁵⁾에 관한 것이므로, 다양성은 일반성이고, 개방성은 개별성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은 구비전승물에서 섬의 다양성에 토대를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개방적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섬의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에 다양성의 축을 두고 개방적 놀이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에서 ‘도서지역민의 다양’이 던져주는 ‘개방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은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의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 문학상, 풍어제의 구비전승물에 대한 도서민의 다양한 지역인식과 개방의 해양정서적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다양의 개방성은 어로행위주체자가 배를 타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면서 해산물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자연에 적응하는 어로행위주체자가 대상을 어떻게 취사선택하는가에서 발견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로행위주체자인 어부, 해녀 등이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들[평야], 산, 갯벌 등에서 조기, 멸치, 오징어(명태) 등을 잡고, 소금, 김, 미역 등을 채취하는 동시에 이를 가공하는 것은 자연에 적응하여 생태적

통해서 개방적 태도·지식·기술을 갖추어 가기 때문이다. (홍순일,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50쪽)

44) 이기문 감수, 앞의 사진, 1993, 1506쪽.

45) 홍순일, 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중 297-300쪽 참조.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개방하여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어로행위주체자가 개방의 다양을 추구하는 길에서 인지어, 속신어, 구조어 등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도서지역민의 어로행위에는 들과 섬에서 생명체가 적응하면서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일반성을 토대로 한다. 한반도 도서지역민은 구비전승물을 통해 불완전적 개방성이 아니라 완전적 개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섬의 다양성에 토대를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개방적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놀이의 언어를 통해서 어로문화권 구성원의 교류 확대를 볼 수 있다. 개방적 다양의 민속놀이면에서 풍어제를 시가무로 푸는 행위를 통해 놀이의 매듭을 단단하게 맺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토대로 한 완전적 개방성과 불완전적 개방성은 구비전승물을 형성하고, 해양정서를 표출하는데 의미망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의 구비전승물에서 개방적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4) 의식성을 기초로 한 진취성

한반도 도서지역의 변화 속에서 지역민이 생업방식을 형성해 나감에 따라 여러 요인이 반영된 민속에서 문화적 진취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意識의 進就性’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면에서 ‘지역민의 의식성을 기초로 한 문화적 진취성’은 어로행위에서, 기후,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바람의 종류 등을 보고 소리를 하는 행위를 통해 노동의 結節點을 만들었다. 어업노동요의 소리정신 구현과 생태 환경에 대한 인지체계⁴⁶⁾의 구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

다. 여기에서 노동이 소리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해양정서로 내세울 수 있는 네 번째는 의식성을 기초로 한 進就性과의 관계에서 추출되는 의미망이다. 들과 섬에서 생명체가 적응하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되, 의식물을 추구한다는 일반성이 있다. 그러나 의식성을 기초로 한 진취성의 여부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前進的 進就性和 後進的 進就性⁴⁷⁾이 바로 그것이다. 進取는 관습에 사로잡힘이 없이 스스로 나아가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진은 사회나 관계 따위에 뒤늦게 나아가는 것이다.⁴⁸⁾ ‘진취성의 기초인 인간의 의식’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전진·후진의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민속과 관련된’ ‘지역민의 의식성을 기초로 한 문화적 진취성’을, 돌인 ‘의식성을 기초로 한 전진적 진취성과 후진적 진취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도서지역 민속의 진취적 의식성’⁴⁹⁾에 관한 것이므로, 의식성은 일반성이고, 진취성은 개별성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은 구비전승물에서 섬의 의식성에 기초를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진취적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섬의 후진이 아니라 전진

46) ‘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체계’는 자연 조건을 반영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조건들은 어구와 어법, 조선술과 항해술을 규정짓는 조건들이 된다. 그 결과 한국의 도서·해양문화의 중요한 특성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고, 자원 전유의 생태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모색할 수 있겠다.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인문학 기반의 해양한국」(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08, 29-33쪽 중 31-32쪽)

47) 섬의 후진이 아니라 전진에 의식의 축을 두고 진취적 노동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중 552-556쪽을 수정한 홍순일, 「서해바다 황금갯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도서문화』3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12, 287~335쪽 중 314쪽)

48) 이기문 감수, 앞의 사진, 1993, 2304쪽.

49) 홍순일, 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중 294-297쪽 참조.

에 의식의 축을 두고 진취적 노동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에서 ‘도서지역민의 의식’이 던져주는 ‘진취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은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의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등 문학상, 어로행위의 구비전승물에 대한 도서민의 의식적 지역인식과 진취의 해양정서적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의식의 진취성은 어로행위주체자가 배를 타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면서 해산물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자연에 적응하는 어로행위주체자가 선택·인식한 해산물의 가공물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한 이를 구비의 문학·예술로 표현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로행위주체자인 어부, 해녀 등이 해양, 도서[섬], 연안(해안), 강, 들[평야], 산, 갯벌 등에서 조기, 멸치, 오징어(명태) 등을 잡고, 소금, 김, 미역 등을 채취하는 동시에 이를 가공하는 것은 자연에 적응하여 생태적 생명을 지속시키고, 개방적 다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의식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후,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바람의 종류 등에 대한 인식을 구비의 문학·예술 등 구비전승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어로행위주체자가 진취적인 의식을 추구하는 길에서 기후,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바람의 종류 등에 대한 인식을 인지어, 속신어, 구조어 등의 언어로 구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도서지역민의 어로행위에는 들과 섬에서 생명체가 적응하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되, 의식물을 추구한다는 일반성을 기초로 한다. 한반도 도서지역민은 구비전승물을 통해 후진적 진취성이 아니라 전진적 진취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섬의 의식성에 기초를 두고 바다와 연안을 오가는 진취적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의 소리를 통해서 한반도 도서지역의 문화적 확대를 볼

수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각 해역 도서지역의 그것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진취적 의식의 민속노동인 어로행위면에서, 기후, 해류 및 조류, 물때, 파도, 바람의 종류 등을 보고 소리를 하는 행위를 통해 노동의 결절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성을 기초로 한 전진적 진취성과 후진적 진취성은 구비전승물을 형성하고, 그리고 해양정서를 표출하는데 의미망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한반도 도서지역민들의 구비전승물에서 진취적 의식성이라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3. 무형문화유산의 세계 등재 성과

도서·해양문화의 조사·연구는 歸結點의 하나를 설정할 수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이 8건 등재되어 있다. 종묘제례,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건과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5건이다.

또한 도서·해양문화 조사·연구는 후속적인 結節點을 설정할 수 있다.⁵⁰⁾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의 기능환기와 의미부여⁵¹⁾가 바로 그것

50)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하나는 1999년도 중점연구소(6년)의 연구수행내용이고(앞의 1999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1999 참조), 다른 하나는 2005년도 중점연구소(9년)의 연구수행내용이다(앞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2005.10 참조). 필자는 1999년도 선정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6차년도(1999.12-2005.11) 중 제3단계 제2차년도(2004.12-2005.11 중 2005.03-2005.11)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2005년도 선정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9차년도(2005.12~2014.11)에 참여하여, 총괄과제명인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도서·해양문화 심층연구」, 세부과제명인 「한국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연구-무형문화자원 분야-」, 1단계(2005.12~2008.11) 세부과제명인 「한국 도서·해양문화의 서해권 연구- 1차

이다. ‘機能’이란 어떤 요소 고유의 효력을 의미하고, 그 효력에 의해 그 상황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객관적으로 규정된 하나의 목적에 응하는 것이다. ‘機能喚起’란 민속공동체의 구비연행자가 고유의 구비전승물이 연행이라는 ‘현장의 현재’에서 문화콘텐츠개발이라는 ‘상황’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공연문화정책이라는 객관적인 목적에 응하도록 관심이나 기억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意味附與’는 민속공동체의 구비연행자가 구비전승물이 연행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면에 맞는 언어구술에 응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비전승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술상 민요를 중심으로 설화(무속신화), 언어상 토속인지어, 기억속신어, 민속구조어, 그리고 구비연행자의 생애담 등이다.

도서·해양문화연구는 기초조사단계 → 정보화 단계 → 활용단계 → 심화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조사단계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이, 정보화단계는 DB구축, 아카이브, 홈페이지구축, 온라인서비스 등이, 활용·심화단계는 문화론적 지역활성화, 제도 및 정책제안, 문화원형 및 콘텐츠개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기획된다. 민속지적·문화생태적·활용론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에 따라 찾아낸 섬과 바다, 주민, 도서·해양문화, 문화자원 등의 주제어를 문화론적 지역활성화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다. 동시에 ‘학제간 공동연구방법

소금, 2차 갯벌, 3차 소금·젓갈을 중심으로。」를 수행해 왔다. 1단계 1차년도
의 지역은 칠산어장으로 정했고, 제2차년도는 죽도어장으로 하고, 제3차년
도 연평어장을 조사·연구했다. 또한 필자는 같은 방식으로 2단계 1차년도
(2008.12~2009.11) 세부과제명인 「한국 도서·해양문화의 남해 및 제주권 연
구- 멀치를 중심으로。」를 수행해 왔다. 2단계 1차년도의 지역은 완도~고흥~
남해권으로 정했고, 제2차년도는 통영~거제~진해권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
3차년도 추자~제주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51)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제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02, 331-374쪽 중 337쪽·351쪽 참조.

론'을 지향하며, 연구의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다.⁵²⁾ 이러한 연구방법론이 동아시아에의 그것에 적용되었듯이⁵³⁾ 다음 작업⁵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고기잡이 외에 바다와 배를,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매체]와 융합시키는 도서지역민은 종합예술제의장에서 해양신격을 모심으로써 일생과 생산의 주기에 따른 의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진술과 문학적 형상에 의한 미적 전유행위를 시도했다. 그 결과 대상→본질→인식→의식→현상→실천→정서와 관련된 民俗文化의 疏通裝置가 構築되고, 민속과 관련된 생명의 생태성, 적응의 자연성, 다양의 개방성, 의식의 진취성 등 島嶼精神이 具現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문화학자는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정보화→활용→심화 단계로 다루되, 도서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공간을 중시하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그 상대적 특징과 문화권역의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대비 항목의 자료를, 행위주체자, 배경, 대상, 인식, 표현 등의 측면에서 추가하고, 이들 요소간의 통합적인 연구작업을 기획하여, 구축된 民俗文化疏通裝置에 구현된 島嶼精神인 해양정서를 구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52) 연구성과물인 다음 단행본의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나승만 외 지음, 『다도해 사람들·사회와 민속-』, 경인문화사, 2003; 나승만 외 지음, 『섬과 바다-어촌생활과 어민-』, 경인문화사, 2005; 나승만 외 지음,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경인문화사, 2007; 나승만 외 지음, 『서해와 조기』, 경인문화사, 2008; 나승만 외 지음, 『서해와 갯벌』, 경인문화사, 2009.

53) 이경엽 외 지음, 『중국 발해만의 해양민속』, 민속원, 2005; 이경엽 외 지음, 『중국의 섬과 민속 I -주산군도 승사도의 해양민속-』, 민속원, 2007; 이경엽 외, 『중국의 섬과 민속 II -주산군도 하치도의 해양민속-』, 민속원, 2008.

54)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07 참조.

IV. 문화권역의 전개와 등재의 과제

이 제4장은 제3장의 논의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를 겨냥한 한국 문화권역의 논의, 한국·세계 문화자원의 등재 과제 등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겠다.

1. 세계를 겨냥한 한국 문화권역의 논의

여기에서는 시선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양분하고자 한다. 하나는 반도의 시각으로서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고, 지역의 구분은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⁵⁵⁾

4구분의 경우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해외권 등이다.

55) 현단계 해역(지역)은 강, 해산물, 해류 등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강의 경우 금강 하구는 서남권과 서해권의 경계일 수 있고, 섬진강 하구는 서남권과 동남권의 경계일 수 있으며, 형산강은 동남권과 동해권의 경계일 수 있다. (홍순일 조사·최영호(남, 미상, 동아대 석당학술원) 제보, <권역구분의 기준>,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2009.10.23(금)12:00) 그러나 필자는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질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방언권이나 민요권, 놀이권, 명절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문화권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시도는 있었으나 미흡하므로, 추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하겠다.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2008.04, 377-409쪽;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민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시청각실, 2009.08.21(금)15:30, 63~84쪽 중 66~68쪽)

6구분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해외권 등이다. 4구분의 중부권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7구분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 등이다. 6구분의 호남권이 전라권과 제주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11구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남, 충북], 전라권[전남,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경남, 경북], 해외권[해외]이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 강원권의 강원도, 충청권의 충남, 충북, 전라권의 전남,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의 경남, 경북, 해외권의 해외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17구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남(대전), 충북], 전라권[전남(광주),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해외권[해외] 등이다.⁵⁶⁾ 이것은 7구분에서 11구분하고 11구분에서 17구분한 것이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인천)는 서울, 인천, 경기로, 강원권의 강원도는 강원도로, 충청권의 충남(대전), 충북은 대전, 충남, 충북으로, 전라권의 전남(광주), 전북은 광주, 전남, 전북으로, 제주권의 제주도는 제주도로, 경상권의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으로, 해외권의 해외는 국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7구분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되게 했다.

56) 이것은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연구계획서의 경우인데, ‘중부권’은 서울·경기(인천 포함), 강원도, 충남(대전 포함)·충북이고, ‘호남권’은 전남(광주 포함)·전북, 제주도이며, ‘영남권’은 경남(부산·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등이다.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신청요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연구사업단, 2008.06)

다른 하나는 섬의 시각으로서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고, 지역의 구분은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문화』⁵⁷⁾에서 5구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조사 대상 지역은 한국(남한)의 연안·도서지역이며,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개 해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다.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4구분의 경우이다. 이것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이다.⁵⁸⁾ 위의 『한국의 해양문화』 5구분의 제주 해역과 동남 해역이 남해·제주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4구분은 5구분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요컨대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전제로서 지역은 반도의 시각에 따라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 7구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되게 했다. 섬의 시각에 따라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 4구분(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은 5구분(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의 중심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57)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1-5), 해양수산부, 2002. 여기에서 제시한 조사지역은 서남해역(전남, 전북지역), 제주해역(제주도 해역), 동남해역(경남, 경북, 부산, 울산 해역), 서해해역(경기, 서울, 인천, 충청 해역), 동해해역(강원 해역)이다.

58) 앞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2005.10.

2. 한국·세계 문화자원의 등재 과제

어떠한 학문적 연구도 그 학문이 탐구하는 현상에 대한 해명과 그것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 그리고 그 학문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특정한 형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또한 그것이 다른 학문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것에 의해 획득된 진리는 어떤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서술과 더불어 시작되어야만 한다.⁵⁹⁾ ‘한국·세계⁶⁰⁾ 문화자원’에서 한국이 세계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문화자원은 문명의 관점에서 세계담론의 거점이 되되, 어로 문화의 구비전승자원 자체, 학, 비교학, 미학,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 자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로 대상화되기도 한다. 즉 자체·자체사·비평·비평사, 방법론자체·자체사·비평·비평사, 연구자체·자체사·비평·비평사, 연구방법론자체·자체사·비평·비평사의 가능태로 존재 하면서 기능을 환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⁶¹⁾ 이 말은 대상 자체에 관한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구자에 관한 네트워크도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⁶²⁾

59) M.S.까간 지음·진중권 옮김, 「학으로서의 미학」, 「서론」, 『미학강의』 I, 새길, 1989, 21쪽.

60) 여기에서 ‘한국·세계’라고 한 이유는 한국이 세계 속에 포함되기보다는 한국의 조건과 세계의 조건이 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고, 한국이 인류무형 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조건을 확인하면서 세계와 함께 순차적으로 할 일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61)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곡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02를 재수록한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머리말 참조.

62) 이러한 점은 실제적으로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실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인적 네트워크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학제간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해양문화학’ 연구자가 “바다, 섬, 연안문화연구를 하거나 이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여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의견을 나누자”고 하면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한국·세계 문화자원에 접근케 하는 실질적인 연구력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반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등재를 손쉽게 해줄 것이다.

요컨대, 섬의 시각과 사안에 따라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으로 5구분한 문화권역은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으로 재구성되었다. 한국의 문화자원은 문명의 관점에서 해양문화를 세계담론의 거점으로 다루되, 그 자체와 연구가 학, 비교학, 미학, 운동 등의 중심에서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로 대상화되기도 해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생활상의 기능을 환기하고, 어로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은 이러한 작업의 원동력이므로, 한국과 세계 연구자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학술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사업을 장기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확인된다. 한국의 해양문화학을 선점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협력을,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등과 다각적으로 강화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2009.07 참조)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도서지역 구비전승물의 해양 정서를 염두에 두고, 어로문화자원을 登載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우선 문화자원의 존재양상과 의의, 문화자원의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조건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자원의 성격을, 다음에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 대한 연구방향과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세계 등재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구비전승자원에의 접근을, 끝으로 세계를 겨냥한 한국 문화권역의 논의, 한국·세계 문화자원의 등재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권역의 전개를 검토했다. 이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자원의 성격을 논의했다. 주어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체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면인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은, 특히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은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에 주목하면서 ‘예술대상+예술가+예술작품+독자·청중·관객’의 관계 속에 있는, 구술의 무한성과 인식의 유한성, 의식의 개인성과 표현의 사회성, 그리고 체험의 반복이라는 수동성과 총동원된 인식이라는 능동성 등을 깊이있게 살펴야 한다. 또한 起點인 문화자원은 자체를 橋頭堡로 할 뿐만 아니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와 문화관광을 위한 개발·보존 및 기록·영상을 수단으로 할 때 지역문화가 특성화되는 ‘지금의’ 현재적 據點地域과 문화권역이 전개되는 ‘여기의’ 국제적 中點地域이 획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에 지역문화가 역사적으로 특성화되는 면에서 구비전승자원

에의 접근을 논의했다. 고기잡이 외에 바다와 배를,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매체]와 융합시키는 도서지역민은 종합예술제의장에서 해양신격을 모심으로써 일생과 생산의 주기에 따른 의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진술과 문학적 형상에 의한 미적 전유행위를 시도한다. 그 결과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는 대상→본질의 사고전략→인식→의식→현상의 표현전술→실천→정서와 관련된 民俗文化의 疏通裝置가 構築되고, 민속과 관련된 생명의 생태성, 적응의 자연성, 다양의 개방성, 의식의 진취성 등 島嶼精神이 具現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문화학자는 도서·해양문화연구 과정에서 기초조사단계 → 정보화 단계 → 활용단계 → 심화단계로 다루되, 도서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공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문화자원을 학제간 공동연구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에 나타난 상대적 특징과 문화권역의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대비 항목의 자료를, 행위주체자, 배경, 대상, 인식, 표현 등에서 추가하고, 이들 요소간의 통합작업을 기획하여, 구축된 民俗文化疏通裝置에 구현된 島嶼精神인 해양정서를 구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끝으로 문화권역이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을 논의했다. 섬의 시각과 사안에 따라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으로 5구분한 문화권역은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으로 재구성된다. 한국의 문화자원은 문명의 관점에서 해양문화를 세계담론의 거점으로 다루되,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 자체와 그 연구가 학, 비교학, 미학, 운동 등의 중심에서 주체 자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로 대상화되기도 해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생활상의 기능을 환기하고, 어로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은 이러한 작업의 원동력이므로, 한국과 세계 연구자

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학술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사업을 장기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한반도 도서지역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登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내의 무형문화재제도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제도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의 8가지 무형문화자원(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나, 이들 사이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既知數 8건을 통해 향후 未知數를 살피되, 등재의 조건에서 한국·세계 문화자원의 균형감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자원의 등재는 구비적 전승의 한 방편이고, 能事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한국 해역에 구비전승되는 해양정서가 동아시아의 그것과 같고 다르다는 것, 지역문화로서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문화권역의 전개면에서 살피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개별성(특수성)을 세계인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어로문화의 구비전승자원을 학제간 공동연구할 때 대비항목의 다변화를 피하여 그 지평을 확대하고, 해역의 현재적 상황으로 前景化하여 기능환기와 의미부여를 계속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강봉룡, 「한국인의 해양인식과 해양사」, 한·일 해양사·해양문화 공동 워크숍 『한일 해양사 연구의 최전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누

리 다도해문화콘텐츠사업단, 목포대 인문대학 대학원 세미나실, 2008.11.27(목)10:00, 12-22쪽.

나경수, 「생활문화의 시각으로 본 영산포」, 제1회 한국 생태문화마을 포럼 『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남대학교 용지관 멀티미디어 회의실, 2009.11.11(수)13:30, 104-115쪽.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 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요약보고서』, 해양수산부, 2002.10.

_____, 『한국의 해양문화』(1-5), 해양수산부, 2002.

목포대학교, 1999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서남해 도서·연안 지역 무형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 『서남해 도서·연안 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9.

_____,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서 「한국 도서·해양문화의 권역별 심화연구-무형문화자원 분야-」,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도서·해양문화 심층연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10.

,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인문학 기반의 해양한국」(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08.

_____,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07.

_____, 2009-10월 국내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도림캠퍼스) 교수회관 3층 강당(구 대회의실)·신안비치호텔(목포시), 2009. 10.22(목)13:00-23(금)12:00, 초청장.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1991)·전남(1993)·경남(1994)·전북(1995)·경북(1995)·충남(1995)·충북(1995)·경기(1996)·강원(1996)민요해설집』, MBC.

서울특별시, 「통과의례 편」, 『서울민속대관』4, 서울특별시, 1993, 79-88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강강술래 외 4건,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 『유네스코 뉴스-문화 분야』1360-문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탑재 2009.09.30. <http://www.unesco.or.kr/front/main/>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3.

이동근·한철환·엄선희, [보고서]「역사와 해양의식-해양의식의 체계적 함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12.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2007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07.10.25, 17-44쪽.

전북대학교, 「연구원 개요」, 『전북대학교 인문한국(HK) 쌀·삶·문명 연구원 제3차 연구인력 초빙 공고』,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2009.09.22.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라남도 편」, 『한국구비문학대계』(전85권),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_____,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신청요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연구사업단, 2008.06.

홍순일·이옥희·이명진, 「《조사보고서-전남 진도군 일대》<민요>」, 『남도민속연구』제12집, 남도민속학회, 2006.06, 303-376쪽.

홍순일·엄수경·김현주·한은선·이혜숙, 「《기획조사보고서-전남 신안군 증도공동연구》<증도의 민요>」, 『도서문화』제2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663-732쪽.

홍순일, 「일본 히로시마현 도서지역의 민요와 악무-히로시마의 민요와 미야지마의 부가쿠를 중심으로-」, 『일본 히로시마현 도서·연안 지역 답사보고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405호 인문과학연구원 세미나실, 2007.04.19(목) 14:00, 1-8쪽.

홍순일·김현주·한은선, 「《조사보고서-전남 광양시, 경남 남해군 일대》<광양시 일대 조사보고서> 섬진강 유역의 진월면·다압면

민요], 『남도민속연구』 제14집, 남도민속학회, 2007.06, 445~492쪽.

홍순일·김현주·김해미·최유미, 「《조사보고서-전북 부안군 옥도면 고군산군도 일대》<선유도·무녀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30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12, 387-431쪽.

홍순일, 「연평도사람들의 민속공동체와 구비전승」, 『중점 2세부 1단계 3차년도 연평어장권 공동답사 보고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회의실(교수회관 404호), 2008.06.05(목) 13:20, 1-24쪽.

_____,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지역의 구비전승-대마도의 이야기와 노래를 중심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지역 답사보고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404호 도서문화연구소 회의실, 2008.08.11(월)15:00.

_____, 「서해바다 연평어장권 조기잡이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연평도 주민들의 삶과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남도민속학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8.11.29(토)16:03, 76-97쪽.

_____, 「갈등에서 바라본 <춘향가>창본의 표현문체와 대상인식의 원리」, 제271차 2월 월례학술정기발표회『발표논문』, 어문연구학회 고전문학분과, 충남대 인문대학 교수회의실(438호), 2009.02.21(토) 17:00, 1-12쪽.

_____,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 민속도서관 시청각실, 2009.08.21(금)15:30, 63-84쪽.

_____, 「남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멸치를 중심으로-」, 『거문도와 남해도의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9.10.15(목)17:21, 71-93쪽.

_____,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해양정서의 구비적 전승」, 국내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9.10.22(목)15:00, 244-285쪽.

2. 저서

- 강봉룡·이윤선·홍순일 지음,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5년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제작: 민속원), 2008.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曲金良 편저/ 김태만·안승웅·최낙민 편역, 『21세기 중국의 해양문화 전략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2.
- 김순제, 『한국의 뱃노래』, 호락사, 1982.
- 김 준, 대한민국 보물섬 베스트 33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게 취하는 섬 여행』, Y브릭로드, 2009.
- 나승만·김준·신순호·김창민·유철인·이경엽·김웅배·이준곤, 『다도해 사람들·사회와 민속』, 경인문화사, 2003.
- 나승만·신순호·조경만·이준곤·이경엽·김준, 『섬과 바다·어촌생활과 어민』, 경인문화사, 2005.
- 나승만·신순호·조경엽·이경엽·김준·홍순일,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경인문화사, 2007.
- 나승만·조경만·고광민·이경엽·이윤선·김준·홍순일 지음, 『서해와 조기』, 경인문화사, 2008.
- _____, 『서해와 갯벌』, 경인문화사, 2009.
- 손태도·정의연 공저, 『남해 상여와 상여소리』, 남해군·남해창선상여놀이보존회, 2005.
- 야키미치 토모야 저, 이선애 역, 『해양인류학: 해양의 박물관학자들』, 민속원, 2005.
- 엘빈토플러·이규행 監譯,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4.
- M.S.까간 지음·진중권 옮김, 『미학강의』 I·II, 새길, 1989·1991.
- 이경엽·趙成國·나승만·고광민·지춘상·민혜란·曲金良·안동환·조기정

지음, 『중국 발해만의 해양민속』, 민속원, 2005.

이경엽·나승만·고광민·이윤선·모정열·趙成國·郭振民·曲金良, 『중국의 섬과 민속 I -주산군도 승사도의 해양민속-』, 민속원, 2007.

이경엽·나승만·고광민·이윤선·모정열·趙成國·郭振民·曲金良·程俊, 『중국의 섬과 민속 II -주산군도 하치도의 해양민속-』, 민속원, 2008.

주강현, 『조기에 관한 명상』, 한겨레신문사, 1998.06.

_____, 『주강현의 관해기 일상과 역사를 가로지르는 우리 바다 읽기 관해기 1/2/3 남쪽바다/서쪽바다/동쪽바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6.07.

편집부 구성, 『철학에세이』, 동녘, 1983.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곡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02. [재수록]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3. 논문

고순희, 「우리 고전 해양문학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해양문화학』 창간호, 한국해양문화학회, 2005.12, 1-21쪽.

김순갑,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나타난 해양정서」, 『해양문화연구』제4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1998.12, 131-173쪽.

_____, 「우리대중가요 70년에 나타난 해양정서: 이별의 슬픔과 새 시대의 희망이 파도처럼 출렁인다」, 『시민시대』통권 제172호, 목표학술회, 1999.02.01, 28-33쪽.

나승만, 「민중 생애담 조사법」, 『한국민속학』제9호, 민속원, 1999.11. 192-204쪽.

_____, 「뱃사람들의 생활과 생애이야기」, 『한국의 해양문화』1 서남해역 (하), 해양수산부, 2002.12, 60-131쪽.

- _____, 「서남해역 해양민요」, 『한국의 해양문화』1 서남해역 (하), 해양수산부, 2002.12, 525-569쪽.
- 나승만·홍순일, 「무안민요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론적 활용-들노래를 중심으로-」, 『도서문화』제29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06, 317-366쪽.
- 이경엽, 「서해안의 배치기 소리와 조기잡이의 상관성」, 『한국민요학』제15집, 한국민요학회, 2004.12, 215-248쪽.
- 이덕순, 「도서문화의 전수와 창달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전략」, 『관광연구저널』제23권 제1호, 한국관광연구학회(구 한국관광개발학회), 2009.02, 161-172쪽.
- 이운선, 「조기잡이 닻배와 어로민요 닻배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2.02.
-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08, 439-491쪽.
- 전경수, 「사자를 위한 의례적 운간- 추자도의 산다위 -」, 『한국문화인류학』24,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03.
- 정원호, 「배치기소리에 관한 소고-MBC민요대전을 중심으로-」, 『한국음반학』12,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131-144쪽.
- 좌혜경, 「해녀노래의 노동기능과 정서」, 세계잠녀학술회의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2002.06.01, 186-205쪽.
- 주강현,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어업생산력과 임경업 신격화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창간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07.
- 최원오, 「구비전승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화인류학』4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11, 187-224쪽.
-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문화관광-〈신안민요〉·〈완도민요〉·〈진도민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제17집, 한국민요학회, 2005.12, 311-355쪽. [재수록] 홍순일 외 지음, 『수산노동요연구』, 민속원, 2006, 321-361쪽(참고문헌 370-373쪽).
- _____,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_____, 「《도서지역 민요》와 민속문화정보」, 『한국민요학』제19집,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_____, 「《신안민요》의 언어문학적 접근과 소리문화적 활용-<지도민요>·<중도민요>·<임자도민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제14집, 남도민속학회, 2007.06, 321-366쪽.

_____,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제1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8.02, 331-374쪽.

_____, 「서해바다 황금갯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도서문화』제30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12, 287-335쪽.

_____, 「무안지역 왕건전설의 특징과 문화론적 활용」, 『어문연구』제56집, 어문연구학회, 2008.04.30, 245-288쪽.

_____,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제22집, 2008.04, 377-409쪽.

홍태한, 「설화와 민간신앙에서의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남이 장군과 임경업 장군의 경우-」, 『한국민속학보』, 한국민속학회, 1994.03, 31-52쪽.

황인덕, 「구비전승자료의 현지조사 및 자료화 문제에 대한 검토」, 『목원어문학』5, 목원대 국문학과, 1985.12.

Registrative Approach to Cultural Resources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Oral Heritages-

Soon-Il Hong*

This study explored oral heritages of fishery literature in the island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registrative perspective. Moreover, it focused on the islands spirit incarnated via the folklore cultural communication device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oral heritages. At the same time, it speculated on the historical status of marine atmosphere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first discussed the characteristic of cultural properties. In regard to cultural resources, Local culture began to be characterized in history and cultural zones became expended in society. Therefore, infinity and finity, individualism and socialism, activity and passivity should undergo in-depth inspection which are in the relationship of artistic object+artist+artistic works+reader/attendance/audience.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hould be used as a means and development/conservation and record/film for cultural tourism should be utilized as methods.

Second, access to oral heritages was discussed in a sense that local culture are characterized in historical view. Islands inhabitants have idolized the sea god at comprehensive artistic ritual sites. Through this, they performed a ceremony following life and production cycles. Not only that, an

*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Island Cul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aesthetic monopoly activity was tried on by linguistic statements and literary images. As a result, a folk cultural communication device is established in relation to object→substance→cognition→consciousness→phenomenon→practice→emotion. Islands spirits, such as the ecology of life, the nature of adaptability, the openness of diversity, enterprise of consciousness, etc. comes to embodiment. Therefore, a sea culturologist who sets a high value on islands people's daily life and cultural spaces should supplement additional contrast clauses in order to understand relative characteristics regarding oral heritages of fishery culture. At the same time, interdisciplinary joint research projects which include the subject, background, the object, cognition, and expression should be designed and investigate maritime spirits shown in oral heritages.

Last, the issue of cultural zones which socially expand was placed on discussion. Cultural zones which are divided into five regions from the Southwest waters, the West waters, the South waters and the Jeju waters, through to the East waters, depending on islands' perspectives, becam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the Southwest waters, the West waters, the South and Jeju waters, and the East waters. To be a global topic, the oral heritage of fishery culture sometimes should be the subject of folklore, comparative study, aesthetics, kinetics and, sometimes, should be the object of them. Furthermore, its function should be awakened in temporary life and its meaning should be exhibited in fishery practices.

Key Words : the Korean Peninsula, Islands regions, cultural resources, fishery culture, registration, oral heritages, islands spirits, marine spirits, folklore cultural communication device, marine culture